

한국어의 어순뒤섞기와 용인성 측정법*

이 기 갑

1. 이 글은 한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인 어순뒤섞기(scrambling) 현상에 의해 생기는 여러 문장들의 용인성(acceptability)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뒤섞기는 절이나 관형구(adnominal phrase)를 넘어서 일어나면 원문장의 문법성을 해치게 되며, 결과 관형구라는 통사적 섬(island) 안에서 일어나면 문법성과는 상관없이 단지 원문장의 용인성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¹ 어떤 문장의 용인성에 대한 토박이의 판단 역시 그의 잠재적인 언어 능력의 일부로서,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정상적인 문법 이론이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2. 이익섭/임홍빈(1983:19-20)에는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설명이 있다. 아래의 예와 각 문장의 문법성의 판단은 이익섭/임홍빈(1983)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다.

- (1) 가. 형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 나. 나에게 형은 선물을 주었다.
 - 다. 선물을 형은 나에게 주었다.
 - 르. ?*선물을 나에게 형은 주었다.

- (2) 가. 나는 그를 천재로 알았다.
 - 나. 그를 나는 천재로 알았다.
 - 다. ?*나는 천재로 그를 알았다.
 - 르. *그를 천재로 나는 알았다.

* 이 글은 1987년도 문교부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논문의 일부이다.

¹ 경우에 따라서는 뒤섞기가 절의 한계 밖을 벗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Haig, J.H.(1976)에서 'emphatic fronting'이라고 불렀던 현상은 일본어뿐 아니라 우리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예: 철수가, 나는, 우리한테서 제일 힘이 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emphatic fronting이 대부분 상위문의 주어와 '-는'과 같은 주제표지에 이끌릴 때에 한한다는 제약이 있어 정상적인 scrambling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학자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emphatic fronting과 scrambling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타난다(Gunji, Takao 1987:221 주 11).

- ㄱ. ?*천재로 나는 그를 알았다.
 ㄴ. *천재로 그를 나는 알았다.

이익섭/임흥빈(1983)에서는 위 문장 가운데 (1)과 (2)의 ㄱ을 기본어순의 문장으로 삼고 여기에서 뒤섞기가 적용된 (1)의 ㄴ-ㄷ과 (2)의 ㄴ은 용인될 수 있지만 ㄱ보다는 자연스럽게 못한 이른바 유표 어순(marked order)의 문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예들은 모두 문법적으로 어긋난 문장들로 판단되는 예들이는데, 이 가운데 (1)의 ㄴ은 기본어순을 이탈한 성분이 들어나 되기 때문에 비문이 되었으며, (2)의 ㄴ-ㄷ은 '천재로'와 '알았다'가 밀착된 성분으로서 분리되기 어려운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밀착성을 깨뜨린 데서 (2)의 ㄴ-ㄷ의 비문들이 생겨난다는 설명이었다.

이러한 설명과정에서 우리는 기본어순으로부터의 이탈된 성분의 수, 그리고 성분 사이의 긴밀한 통합관계라는 상이한 기준이 (1)과 (2)의 문법성의 판단에 각각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 1) (1)의 ㄴ과 (2)의 ㄴ-ㄷ의 문장들은 실제로 모두 비문인가?
- 2) (1)과 (2)에 대한 위의 설명들은 모두 옳은 것인가?
- 3) (1)과 (2)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은 없는가?

3. 앞서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는 절이나 관형구와 같은 첨 안에서 일어나는 뒤섞기는 결코 문법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적어도 필자의 직관으로는 (1)의 ㄴ과 (2)의 ㄴ 이하의 문장들도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글의 가정과 필자의 직관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제보자들로 하여금 (2)의 문장들을 판단하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우선 (2)의 문장들을 무작위로 배열하고 이에 대한 자연스러움의 순서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² 제보자로는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목포대학에서 인문과학을 가르치는 교수 15명(30대 9명, 40대 3명, 50대 3명)과 필자의 언어학개론 강의를 수강하는 국문과 2학년 학생 20명을 선정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³

² 에 (2)의 '천재로'를 '천재성으로'로 해석함으로써 문법성이나 용인성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실제의 조사과정은 (2)의 여섯 문장들이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³ 교수와 학생 집단의 조사결과는 편차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름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각 문장의 자연스러움의 정도가 동일한 점이 눈에 뜨인다. 참고로 두 집단의 평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용인성의 정도에 대한 판단

문장번호	순 위						합계	평균	편차
	1	2	3	4	5	6			
ㄱ	35	0	0	0	0	0	35	1.00	
ㄴ	0	26	5	4	0	0	83	2.37	1.37
ㄷ	0	6	18	8	2	1	115	3.29	0.92
ㄹ	0	2	9	12	5	7	146	4.17	0.88
ㅁ	0	1	2	3	21	8	173	4.94	0.77
ㅂ	0	0	1	8	7	19	190	5.43	0.49

위의 분석표에서 세로는 예 (2)의 문장 번호를 가리키며, 가로는 순위는 각 문장에 대한 제보자의 순위 판단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문장의 순위란에 적혀 있는 숫자는 35명의 제보자들이 각각 해당 문장의 해당 순위에 대해 내린 판단의 수효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각 문장에 대해 내린 제보자의 판단의 전체 값을 계산함으로써 각 문장들 사이의 자연스러움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순위에 대해 일정한 점수를 배당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즉 1순위에는 1점, 2순위에는 2점, ...6순위에는 6점을 배당하여 각 문장의 순위마다 판단을 내린 제보자의 수와 곱하여 합산한 결과가 위 분석표의 합계이다. 그리고 이 합계 수치를 전체 제보자 35로 나눈 결과가 평균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평균 수치는 1순위를 1점, 2순위를 2점, ...6순위를 6점으로 가정했을 때에 각 문장에 대해 제보자 한 사람이 부여한 자연스러움의 값이라 할 수 있다. 즉 점수가 많을수록 그 문장은 자연스러움의 정도가 떨어지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순위에 따라서 1순위는 1, 2순위는 2, ... 6순위는 6의 기대값을 갖는데, 위 분석표에 나타난 각 평균치는 순위에 대한 기대값에 거의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6순위인 ㅂ에 대해서 기대값 6에 대해 5.43을 보여 -0.57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기는 하다. 이것은 아마도 상위 순위의 절대값에 대한 차이들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집 단	문장번호	순 위					
		ㄱ	ㄴ	ㄷ	ㄹ	ㅁ	ㅂ
교 수		1.00	2.27	3.33	3.93	5.00	5.47
학 생		1.00	2.45	3.20	4.35	4.90	5.10

편차에 있어서는 ㄱ-ㄴ이 제일 크고, ㅁ-ㅂ이 제일 작다는 점에서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ㄷ-ㄹ의 편차에 있어서는 교수들의 경우 0.6으로서 비교적 낮은 네번째의 수치를 보이는 반면, 학생들은 1.15로서 상위 두번째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이러한 평균값의 차이는 세대와 교육 정도, 그리고 지적 능력의 차이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글에서는 이 두 집단 사이의 비교가 주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이상의 과정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2)의 각 문장들의 자연스러움의 정도는 $\Gamma > \text{L} > \text{R} > \text{C} > \text{D} > \text{H}$ 이다.⁴

2) (2)의 C 이하의 문장들도 비문이라기보다는 용인성에서 Γ 과 L에 상대적으로 뒤질 뿐이다.

3) $\Gamma > \text{L} > \text{R} > \text{C} > \text{D} > \text{H}$ 사이의 평균값의 차이는 하위순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Γ -L사이의 값을 보였던 차이가 D -H에서는 0.49정도의 값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위의 세 가지 결과 가운데 우선 3)처럼 하위문장으로 갈수록 평균값의 편차가 작아지는 사실은 곧 하위 문장 사이의 구분이 어려움을 말해 준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제보자들은 1~3 순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신있게 판단할 수 있었다면 4~6 순위의 문장의 판단은 상당히 어려웠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1~3 순위인 $\Gamma > \text{L} > \text{R}$ 의 판단이 $\text{C} > \text{D} > \text{H}$ 에 비해 보다 확실하며, 또한 순위에 있어서도 전자가 후자를 앞서는 사실은 이 두 부류가 성분 '그를'과 '천재로' 사이의 상대적 위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Gamma > \text{L} > \text{R}$ 은 '그를'과 '천재로'가 기본어순과 같은 순서를 보이는 문장이라면, $\text{C} > \text{D} > \text{H}$ 은 이 두 성분의 순서가 도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성분은 의미적으로 주어와 술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성분의 위치가 뒤바뀔 경우 그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도치가 빚어내는 일반적인 어색함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의 말할이들은 예 (2)와 같은 구문에서 이 두 성분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편 '그를'과 '천재로'의 상대적 위치만으로는 1)에 나타난 문장들의 용인성의 정도 차이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시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4. 이익섭/임흥빈(1983)에 제시된 설명의 밑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기본어순의 문장은 완전한 문장으로서 본보기가 되는 문장이다. 이러한 기본어순의 문장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문장

⁴ 이 순서는 이익섭/임흥빈(1983:19)에서 판단한 것과는 약간 다르다. 만약 *를 *보다 더 나은 문장으로 해석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이익섭/임흥빈(1983)에서의 판단 순서는 $\Gamma > \text{L} > \text{C} = \text{D} > \text{R} = \text{H}$ 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처럼 말할이에 따라 판단의 변이가 심한 문장들은 결국 이 글에서와 같은 통계적 처리 방법을 취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 적어도 기본어순의 문장에 비해서는 자연스러움의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생각을 좀더 확대해석하면 기본어순의 문장으로부터 뒤섞기의 절차를 거쳐 생겨나는 여러 가능한 문장들의 용인성의 정도는 본보기가 되는 기본어순의 문장으로부터 이탈된 정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어순의 문장과 비교해서 성분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나 거리에 차이가 날수록 용인성은 낮아지게 된다는 말이다. 물론 성분에 따라서는 이동의 결과가 그다지 심각한 어색함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양상의 부사인 경우 피수식이 바로 앞에 놓여야 하는 것이 한국어의 기본어순이라 할 수 있는데(예 : 집에 빨리 가거라), 이 부사가 문장 앞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러움의 정도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는 듯하다(예 : 빨리 집에 가거라). 이러한 사정은 곧 한 문장 안의 성분들 사이에도 이동이 용인성에 미치는 효과가 각각 다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성분들의 이러한 차이를 인정한다면, 각 성분들의 위치나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성분들의 이와 같은 차등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에서 특히 성분들의 선후관계의 경우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성분에 따라 각각 다른 점수를 배당하는 방법을 채택하려고 한다.

기본어순으로부터의 이탈의 정도를 계산하여 이를 근거로 문장의 용인성을 측정한다면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기본어순의 문장을 표면구조상에서 규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알아 보기로 하자.

우선 한 문장의 구조는 통합관계와 계층관계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뒤섞기와 같은 이동 현상이 언어 보편적으로 제약받는 계층적 구조는 문장(S)과 관형구(adnominal phrase)이다. 다시 말하면 뒤섞기는 절 안에서만 가능하며 결코 절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관형절을 포함한 관형구는 뒤섞기의 심으로 기능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을 어긴 문장은 비문이 된다. 반면 이러한 계층구조 단위 내부에서의 통합관계의 변화는 문법성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 용인성과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논의와 관계 있는 변수는 바로 이 통합의 관계이다.

통합의 관계는 성분 사이의 선적(linear)인 관계이므로 여기에는 인접과 선후의 두 종류의 관계가 포함된다. 인접의 관계는 곧 문장 안의 성분들 사이의 가까움의 거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로 인접하여 있던 성분들이 이동의 결과 떨어져 있게 될 때, 떨어진 거리(곧 중간에 끼인 성분들의 수)가 이탈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인접하여 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선후가 결정되어 있을 터인데, 이동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 선후가 뒤바뀔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원래의 선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와 뒤바뀐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후자의 경우에 한

하여 이탈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인접한 거리와 선후관계의 두 변수를 근거로 하여 예 (2)의 각 문장들의 용인성의 값을 측정하도록 하자. 우선 이를 위해 (2)와 같은 문장의 각 성분을 주어(S), 목적어(O), 보어(C), 그리고 서술어(V)로 나타낸다. 따라서 기본어순의 문장은 S-O-C-V의 어순을 갖게 된다.

성분의 인접관계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본어순에서와 같은 인접관계에는 0의 값을 주고, 그 사이에 다른 성분이 끼어 들어 원래의 인접성이 파괴될 경우에는 중간에 끼인 성분의 수만큼의 값이 배당된다. 따라서 그 수치가 많을수록 성분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2)의 경우 인접성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성분 S-O, O-C, C-V의 세 경우이다.

성분의 선후관계는 기본어순의 선후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원래의 선후와 같은 경우에는 0점을 주고, 그 앞뒤가 뒤바뀔 경우는 가산점을 주되 이때는 성분에 따라 차등의 점수를 부가한다. (2)에서 인접한 성분 사이의 선후관계는 이론적으로 $S > O$, $O > C$, $C > V$ 의 세 경우인데 실제로는 서술어가 문장의 맨 마지막을 차지하는 것은 (2)의 각 문장에서 공통이므로 $C > V$ 의 선후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계산에 고려되는 선후는 $S > O$, $O > C$ 의 두 가지인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O > C$ 의 관계는 의미적으로 주어와 술어의 관계이므로 $S > O$ 보다는 더 많은 점수를 배당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실제의 계산에서 $O > C$ 에는 2점, $S > O$ 에는 1점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점수 배당의 차등성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차등 배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계산의 결과가 제보자들의 판단에 일치된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⁵ 이상과 같은 점수 배당 하에서 이루어진 실제 계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 장	인 접 관 계				선 후 관 계			인접 +선후
	S-O	O-C	C-V	합계	S>O	O>C	합계	합계
(ㄱ) S-O-C-V	0	0	0	0	0	0	0	0
(ㄴ) O-S-C-V	0	1	0	1	1	0	1	2
(ㄷ) S-C-O-V	1	0	1	2	0	2	2	4
(ㄹ) O-C-S-V	1	0	1	2	1	0	1	3
(ㅁ) C-S-O-V	0	1	2	3	0	2	2	5
(ㅂ) C-O-S-V	0	0	2	2	1	2	3	5

⁵ 만약 $O > C$, $S > O$ 에 각 1점이 배당될 경우는 예측되는 자연스러움의 순위는

결국 이상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2)의 문장의 자연스러운 순서는 ㄱ>ㄴ>ㄷ>ㄹ=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결과는 앞의 설문조사의 결과인 ㄱ>ㄴ>ㄷ>ㄹ>ㅁ>ㅂ과 거의 일치되고 있다. 다만 ㄹ과 ㅁ에서 ㄹ>ㅁ이었던 것이 ㄹ=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제보자들의 판단인 ㄹ>ㅁ을 ㄹ=ㅁ으로밖에 예측할 수 없는 이 글의 측정방법은 이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ㄹ>ㅁ이 5~6위의 순위라는 점, 그리고 그 편차가 0.4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처럼 미세한 편차까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접과 선후 이외의 다른 보다 섬세한 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접과 선후 이외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생각에 따라서는 인접관계에서도 성분에 따라서 차등의 점수를 배정한다면 선후관계가 아닌 인접관계만으로도 용인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인접관계에서도 S-O보다 O-C, C-V에 더 많은 가중치를 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는 C-V의 밀착성에 의해 (2)의 ㄷ-ㅁ의 낮은 용인성을 설명하려 하였다. 따라서 이 가정이 옳다면 C-V 사이의 인접관계만으로도 제보자의 판단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결과는 그렇지 못한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인접관계의 점수 배당을 달리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기로 하자.

1) S-O, O-C, C-V가 각 1점일 경우 :

$$\text{ㄱ}(0) > \text{ㄴ}(1) > \text{ㄷ} = \text{ㄹ} = \text{ㅁ}(2) > \text{ㅂ}(3)$$

2) S-O, O-C가 1점, C-V가 2점일 경우 :

$$\text{ㄱ}(0) > \text{ㄴ}(1) > \text{ㄷ} = \text{ㄹ}(3) > \text{ㅁ}(4) > \text{ㅂ}(5)$$

3) S-O, C-V가 1점, O-C가 2점일 경우 :

$$\text{ㄱ}(0) > \text{ㄴ} = \text{ㄷ} = \text{ㄹ} = \text{ㅁ}(2) > \text{ㅂ}(4)$$

4) S-O가 1점, O-C, C-V가 각 2점일 경우 :

$$\text{ㄱ}(0) > \text{ㄴ}(2) > \text{ㄷ} = \text{ㄹ}(3) > \text{ㅁ}(4) > \text{ㅂ}(6)$$

이 네 경우는 그 어느 것도 선후관계를 고려한 앞서의 분석보다 나은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제일 근사한 것으로는 2)와 4)를 들 수 있지만 이들도 모두 ㄷ과 ㄹ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제보자들의 판단과는 상반되는 ㅁ>ㅂ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2)와 같은 문장의 용인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분들의 인접관계와 함께 선후관계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ㄱ(0)>ㄴ(2)>ㄷ=ㄹ(3)>ㅁ=ㅂ(4)처럼 된다. 따라서 이 결과는 토박이들의 직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점에서 선후관계에 대한 차등의 배당 원칙의 합리성이 뒷받침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5.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순뒤섞기 현상은 절 안이나 관형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제약을 갖는다.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만들어진다.

2) 절이나 관형구라는 섬 안에서 뒤섞기가 일어날 경우에는 비문법적인 문장을 형성하지는 않는다. 다만 용인성이 달라질 뿐이다.

3) 한국어는 일정한 기본어순을 갖는다. 만약 뒤섞기에 의해 이 기본어순이 파괴될 경우에는 그것이 절이나 관형구 안에서의 일이라면 용인성만을 해친다. 따라서 뒤섞기에 의한 용인성의 정도는 곧 기본어순으로부터의 이탈의 정도에 비례한다.

4) 문장은 계층관계와 통합관계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특히 통합관계는 성분 사이의 상대적 선후관계와 인접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5) 따라서 기본어순에서의 이탈의 정도 역시 이러한 선후와 인접이라는 두 가지 통합관계에 의해 양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6) 인접관계의 이탈은 원래 서로 인접하였던 성분들이 뒤섞기에 의해 떨어져지게 될 경우, 그 사이에 끼인 다른 성분들의 수로 계산 가능하다.

7) 선후관계는 원래의 선후를 어기고 뒤바뀔 경우, 기본어순에서 이탈된 것으로 본다.

8) 성분에 따라서는 인접과 선후관계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것은 인접성에서 다른 성분에 비해 더 긴밀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분은 선후관계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분의 이러한 차등성은 용인성의 계산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의 경우는 의미상으로 주술관계에 있는 '그를'과 '천재로'의 상대적 위치는 다른 성분들의 상대적 위치에 비해서는 더 무겁게 인식되어야 한다.

9) 본문의 예 (2)는 이익섭/임흥빈(198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과 2만이 정문이고 나머지 문장들은 모두 비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1과 2 이외의 문장들도 토박이들에 있어서는 순서를 매길 수 있을 정도의 용인성의 정도차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용인성에 대한 제보자들의 판단은 반드시 어떠한 이론에 의해서든지 설명되어야 한다.

10) 앞에서 말한 인접과 선후에 의한 계산의 결과는 제보자들의 판단에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두 변수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alpha > \beta$ 을 $\alpha = \beta$ 으로 예측한 것으로 미루어, 인접과 선후 이외의 다른 기준 또는 기왕의 기준에 대한 정밀화 작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 따라서 용인성의 정도에 대한 이 글에서의 측정 방법은 단지 시험적인 작업의 결과일 뿐이다. 앞으로 여러 문장 구조에 대한 경우를 고려한 보다 완벽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이익섭/임흥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Gunji, Takao (1987) *Japanese Structure Grammar—A Unification-Based Approach*, D. Reidel Publishing Company.
 Haig, J.H. (1976) 'Shadow Pronoun Deletion in Japanese,' *Linguistic Inquiry* 7.2.
 Hawkins, J.A. (1983) *Word Order Universals*, Academic Press.
 Jo, M.J. (1986) *Fixed Word Order and the Theory of the Pre-Verbal Focus Position in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BSTRACT

Scrambling and Acceptability in Korean

Lee, Kigap

This brief paper treats scrambling and its resulting variations of acceptability in Korean.

In general, the structure of a sentence can be defined in terms of hierarchical and syntagmatic relations which can be changed by scrambling procedure. Syntagmatic relation involves the relative precedence and adjacency relations of the constituents in a sentence. So it can be said that scrambling affects the precedence and adjacency relations of the constituents.

All possible sentences generated by scrambling within the syntactic islands are regarded as acceptable by native speakers, but their degrees of acceptability are so different that we can calculate them in terms of

their degrees of deviance from the basic word-order sentence. And these degrees of deviance are identified as those of syntagmatic relations, that is, precedence and adjacency.

534-830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립리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